

경제

“혁신도시 공공청사 신축공사 지역업체 공동도급 기회줘야”

국가계약법상 50억 이상 참여 불가 불만 전남도·대한건설협회, 중앙 정부에 건의

나주에 건설 중인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신축공사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 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50

억원이 넘으면 지역 제한없이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사업비를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3154억원, 한전 KDN 1332억원, 한전KPS 924억원, 한국전력진흥원 386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74억원, 한국농어촌공사 904억원, 전라연구소 346억원, 농업연구실 255억원, 전력거래소 743억원, 우정사업정보센터 493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4억원, 농수산식품공사 39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45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88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40억원 등으로 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15개 이전기관 모두 청사 신축비가 50억원을 넘어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지역 건설업체는 설계, 감리 등 일부에만 참여할 수 있을뿐 건축사업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은 4대강 사업과 같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제를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터기방식은 20% 이상, 일반

공사는 40% 이상 지역업체 공동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지적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지역업체 의무공공도급제 일괄 적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도 조만간 국토부와 기재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가 극심한 추수난을 겪고 있다”며 “4대강 사업처럼 혁신도시 사업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G경제재 “내년 4% 성장”

LG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4%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근태 연구원은 이날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 둔화에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4% 내외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6일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순천 성장중공업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제공)

포스코 정준양 회장 광양·순천산단 방문

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의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16일 광양·순천지역 산업단지를 방문해 2~4차 협력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정 회장은 광양·순천지역 산업단지는 광양제철소의 열연, 방연 등을 사용해 철강 조물, 파이프, 농기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정 회장은 포스코의 2차 협력업체인 순천 소재 성장중공업(주)과 광양 초남산단 내 한국산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성장중공업은 150여명의 직원이 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철

관 절단·절곡 등을 하는 한국산업은 27명의 직원이 연 2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 회장은 이들 업체 방문에 이어 초남산단 내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을 초청해 2시간에 걸쳐 도시락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및 동반성장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 회장은 “여러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서 정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분기 산업기상도

반도체·철강 ‘맑음’ 자동차·조선 ‘흐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낸 ‘4분기 산업기상도’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전자, 철강 분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전자제품의 ‘스마트화’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6.7% 늘어나고 전자 제품도 수출액 추이와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이 30.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은 중국, 아세안, 중동 등 선진국가가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집중하면서 수요가 장기간 수출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란 제재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안감으로 자동차(3.2% 감소)와 조선(5.5% 감소)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대한상의는 예측했다. 자동차의 경우 4분기 내수판매도 작년 동기의 실적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고유가, 금리 인상 등 자동차 구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17.6% 줄어줄 전망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11.85 (-12.02) 코스닥지수 480.62 (-0.66) 금리 (국고채 3년) 3.39% (-0.04) 원·달러 환율 1,164.50원 (+3.60)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아파트·빌딩 시설관리 용역전문업체

현대아미스 사옥 서구 마곡동에 준공

아파트·빌딩 공공시설관리 용역전문업체인 현대아미스(주)(대표이사 김우열)가 16일 광주시 서구 마곡동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현대아미스(주) 사옥은 대지면적 3002㎡ 연면적 1792㎡ 규모로 지하블록과 핸드레일, 장애인용 승강기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췄다. 서비스전문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아미스(주)는 장애인 직원 21명을 고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한국일보 선정 ‘2009년 고객감동 기업’에 선정됐다.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2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현대아미스(주)는 올 매출목표 100억원 돌파도



현대아미스(주) 김우열 대표이사는 “효율적 아파트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기아차 노조 무급전임자

70명까지 둔다

기아차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무급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임시 대의원 회의를 진행하며 조합비를 기존 통상임금의 1.2%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8개>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apartments and land.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Table with columns: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 고지된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증매각조건
1.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매각대상 부동산의 명칭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영석